

## 침선장 최온순의 굴건제복(屈巾祭服)의 제작에 관한 연구

이 영 주<sup>†</sup>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sup>†</sup>

### A Research on the Production of Gulgunjebok of Choe Onsun, a Needlework Master

Young-Joo Lee<sup>†</sup>

Adjunct Prof., Dept. of Clothing, Konkuk University<sup>†</sup>

(2023.10.18 접수; 2023.12.12 수정; 2024.2.1 채택)

#### Abstract

The mourning attire worn by the Sangju (Chief Mourner) during Confucian funeral rituals is known as Gulgeonjebok. It is comprised of Gulgeon, Sujil, and Hyogeon on the head, and Jungui underneath. On top of the Jungui, the ceremonial garments called Choeui are worn, along with Choesang. Yojil and Gyodae are then tied around the waist. Mahye and Hangeon are worn on the feet, and a walking stick made of bamboo, paulownia, or willow is carried. A needlework master, Choe Onsun, who was designated as a Holder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Jeollabuk-do on November 27, 1998, is recognized for her efforts in restoring and recreating the forgotten Gulgeonjebok. Thanks to her endeavors, the period, region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Gulgeonjebok in the Jeolla Province have been preserv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reproduce characteristic items of Gulgeonjeboks handed down by a needlework master, Choe, by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dimensions and schematization of the Gulgeon, the method of cutting, and the sewing process. The empirical research on Gulgeonjebok is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raditional sewing skills. It will also serve as a foundation for deepening the level of research on traditional dress and shar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Key Words:* A needlework master Choe Onsun (침선장 최온순), Gulgeonjebok (굴건제복), Joseon Dynasty (조선시대), Men's mourning dress (남자 상복)

## I. 서론

2023년 9월에 작고하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침선장 최온순(崔溫順, 1937년~2023  
년)은 전북 지방의 향토적인 의례 복식을 중심으로

로 한 바느질로 호남지방의 전통 복식 계승 발전  
에 이바지하여 왔다. 일찍이 굴건제복(屈巾祭服)  
의 복원에 관심을 가지고 군산시 성산면에서 상  
복(喪服)을 만들어 온 노응렬 옹에게 제작 방법을  
배웠고 성신여대 의류직물학과 박경자 교수의 고  
증을 통해 잊혀가는 굴건제복을 복원 재현한 공

<sup>†</sup>Corresponding author; Young-Joo Lee

Tel. +82-63-445-4896

E-mail: yjgood@hanmail.net

적을 인정받아 1998년 11월 27일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연합회, 2018).

상복(喪服)은 살아 있는 사람이 떠나간 사람을 위해 입는 옷이다. 유교식 상례(喪禮)에서는 대렴(大殮)을 한 다음 날, 즉 사망 제4일부터 상복을 갖추어 입는데 이러한 절차를 성복(成服)이라 하며 격식에 맞추어 다 갖춘 남자의 상복을 ‘굴건제복(屈巾祭服)’이라고 한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상관(喪冠), 효건(孝巾), 최의(衰衣), 최상(衰裳), 중의(中衣), 행진(行纒), 수질(首絰), 요질(腰絰), 효대(絞帶), 장(杖), 구(屨)로 일습을 이룬다(국사편찬위원회, 2006).

조선시대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삼 년간 상복을 입고 시묘살이를 하는 삼년상을 법도로 삼아 강력한 규제로 다스렸기에 상복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부분 삼일상을 치르고 있어 상례의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성복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단순해졌다. 상복도 빈소 설치 후에 바로 착용하는데 남자는 검은색 양복을, 여자는 흰색이나 검은색의 한복 혹은 검은색 양장을 주로 착용한다. 간혹 상주가 검은 양복에 행진을 치거나 건을 쓴 경우가 있고, 더러 건과 최의를 갖춰 입고 빈소를 지키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전통 상복을 온전하게 갖춰 입은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염습(殮襲)하고 소렴(小斂), 대렴(大斂)을 모두 마친 후 4일 만에 성복을 하는 유교식 상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입관 후에 남자는 이미 갖춰 입은 검은색 양복의 왼쪽 팔에 완장을 착용하고 여자들은 왼쪽 머리에 흰 핀을 꽂거나 혹은 가슴에 상장(喪章)을 다는 것으로 성복례를 대신하곤 한다. 의례라는 것이 결국 인간 삶의 일부이기에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으나 부모를 잃은 애절한 마음을 담아 상복을 엄숙하게 갖추어 입고 장송(葬送)의 예를 행하고 상복을 벗더라도 상중인 것처럼 행동을 삼가며 근신하는 마음을 지니고자 했던 삼년상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되새겨 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굴건제복에 관한 선행 연구는 전통 상복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김희숙(1984)은 고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상복을 고찰하였고, 조우현(1990)은 조선시대 상복의 사

상체계와 구조적 특징 및 기능을 고찰하였다. 문광희(1999)는 상례복의 구성과 형태를 『사례편람(四禮便覽)』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윤은영(2004)은 전통 상복을 고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 광주 지역에서 설문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현행 상복을 연구하였다. 김은정(2006)도 상복을 제작하는 광주 지역 업체의 현장 조사를 통해 현행 상복의 형태를 파악하고, 『사례편람』에 제시된 전통 상복을 제작해 봄으로써 전통과 현대 상복의 구성에 나타난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소황옥과 정혜린(2004)은 전통 상복의 구성을 고찰하고 현대에는 상복이 어떻게 변화되어 착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김장향과 은영자(2006)는 전통 상복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에 적합한 상복의 디자인을 정립하기 위해 고문헌에 나타난 상복의 제도와 구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상일(2011)은 전통 상복의 구성과 상기에 대하여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상복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조우현 외(2016)의 연구에서는 『사례편람』을 기초로 오복 제도에 따라 남자의 상복을 고증 제작하였다. 강수아(2017)는 근대 남자 상복 유물의 구조와 형태 및 구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침선장 최운순의 굴건제복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작고하시까지 약 25년간의 침선장 활동 속에 축적된 침선 기능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과 함께 현재 점차 사라져가는 굴건제복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굴건제복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위해 『사례편람(四禮便覽)』과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 등의 고문헌과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침선장 최운순이 실제 전승 활동에서 전수한 굴건제복 일습 중 가장 특징적인 품목인 최의, 최상, 굴건, 효건의 치수와 도식화, 마름질 방법 및 바느질 과정 등을 고찰하고 실물 제작 연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전통 굴건제복과 침선장 최운순의 굴건제복을 비교 고찰하였다.

## Ⅱ. 조선시대 굴건제복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장의례(喪葬儀禮)는 당사자가 아닌 남은 사람이 진행하는 의례로 다른 예(禮)에 비하여 가장 엄숙하고 정중하게 진행되었다. 수백 년 동안 전승된 유교적 상례는 초종례(初終禮)로부터 소·대상(小·大祥)을 거쳐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19 절목 60여 항목으로 나누어 실천하도록 하였다. 비록 상례의 절차가 복잡하여 행하기가 어렵지만 절차 하나하나에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생명의 존엄성이 깃들여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성복례를 행하기 전에는 역복불식(易服不食)이라 하여 관(冠)을 벗은 후 피발(被髮), 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선을 백색의 베로 두른 백색의 심의를 소복(素服)으로 착용한다. 심의가 없을 때는 백색의 도포 혹은 백색의 직령으로 대신한다. 성복을 할 때는 남자 상주의 서열에 따라 차례대로 상복으로 갈아입는데 먼저 괄발(括髮) 즉, 풀었던 머리를 다시 묶고 상관을 효건 위에 쓰고 수질을 두른다. 최복(衰服)을 입는데 중의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최상을 두른 후 최의를 입는다. 허리에 효대와 요질을 두른 후 종아리에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다(증보사례편람 역주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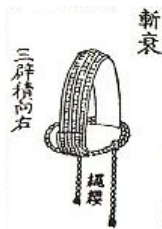
상복은 사자(死者)와의 친소(親疏) 원근(遠近)에 따라 착용 기간과 제작 방법 및 소재 등에 차등을 두어 다섯 단계로 구분하는데 이를 오복제도(五服制度)라 한다. 상기(喪期)에 맞추어 참취(斬衰) 3년, 재취(齋衰) 1년,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總麻) 3개월로 정하였다. 상복은 재료의 거침과 부드러움에 차등을 두어 제작하는데 『예기(禮記)』에서는 참취는 3승(升), 재취는 4·5·6승, 대공은 7·8·9승, 소공은 11·12·13승, 시마는 15승의 삼베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상례비요(喪禮備要)』

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관혼상제의 사례(四禮)를 실천하는데 편의를 주기 위해 1884년에 간행된 이재(李穡, 1680년~1746년)의 『사례편람』에서는 삼베의 승수를 정조(精粗)의 차이로 대체하여 참취는 정련하지 않은 가장 거친 극추생포(極麤生布), 재취는 정련하지 않은 그다음으로 거친 차등추생포(次等麤生布), 대공은 정련한 그다음으로 거친 초숙포(稍熟布), 소공은 정련한 부드러운 초숙세포(稍熟細布), 시마는 정련한 그다음으로 부드러운 세숙포(細熟布)를 사용한다고 하였다(조우현 외, 2016).

본 절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서인 『사례편람』과 황필수(黃必秀, 1842년~1914년)가 교정 증보하여 1900년에 간행한 『증보사례편람』을 통해 조선시대 굴건제복을 살펴보았다.

### 1. 상관(喪冠)

상관은 효건 위에 덧쓰는 관으로 관이 굽어있어 굴건(屈巾) 혹은 쇠관(衰冠)이라고도 한다. 양관(梁冠)과 제관(祭冠)에 줄이 표현된 것처럼 오복에서도 모두 세로로 3개의 주름이 잡혀 있는데 참취, 재취, 대공은 주름이 오른쪽을 향하게 하고 소공, 시마는 왼쪽을 향하게 한다. 재료는 최의보다 조금 고운 베를 사용하는데 폭이 5촌 2푼 반 정도 되는 두꺼운 종이를 풀칠하여 베로 싸서 만든다. 삼끈을 꼬아 만든 무(武)를 관의 아랫부분에 붙여 이마 위에서 묶어 목뒤 쪽에 이르러 어긋매겨 앞을 향해서 귓가에까지 이르면 이것을 묶어서 나머지 것을 드리워 갓끈으로 만들고 턱 밑에서 묶어 고정한다. 『사례편람』의 쇠관도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사례편람』의 참취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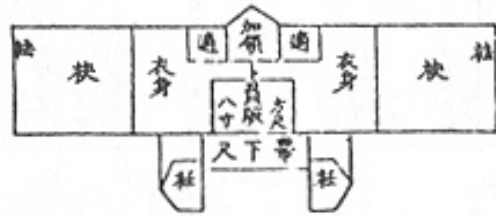


<그림 2> 『사례편람』의 재취관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8)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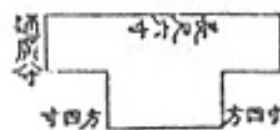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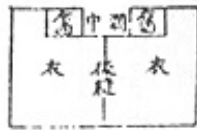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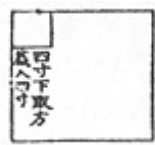


〈그림 3〉『사례편람』의 최의 전도



〈그림 4〉『사례편람』의 최의 후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8)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그림 5〉『사례편람』의 적, 활중

〈그림 6〉『사례편람』의 가령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8)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2. 효건(孝巾)

효건은 굴건 아래에 쓰는 내관(內冠)으로 최의 보다 조금 고운 베를 사용한다. 머리를 싸고 꿰매 솔기가 뒤 가운데에 있고 양쪽을 접어서 안에 넣고 그 위를 꿰매는데 앞뒤에서 바라보면 방관(方冠)과 같으니, 속칭 두건(頭巾)이다.

밖으로 접어 각각 양쪽 어깨 위에 더하면 적, 곧 벽령(辟領)이 된다. 그 안의 앞뒤 좌우 4촌씩 빈 곳이 활중(關中)이다. 대공 이하는 벽령이 없으므로 밖으로 접은 부분을 잘라 버린다. 뒷길의 두 자락을 꿰매는데 등솔기가 밖으로 향하게 바느질한다. 『사례편람』의 적과 활중도는 〈그림 5〉와 같다.

2) 메(袂)

메는 소매로 길이 4척 6촌 되는 삼베 2폭의 한 가운데를 접어 길의 좌우에 꿰매어 연결하고 시접 1촌을 제하고 배래를 꿰매면 소매의 너비는 2척 2촌이 된다. 이 소매 끝에 1척의 소매 한 폭을 연결하고 소맷부리(袪)는 1척 2촌으로 한다.

3. 최의(衰衣)

최의는 남자 상복 중 가장 곁에 입는 상의(上衣)이다. 의신의 길이는 2척 2촌이며 등솔기는 고대 중심에서 4촌을 내려온 지점부터 시접이 바깥으로 나오게 잇는다.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적(適), 메(袂), 가령(加領), 겹(袷), 대하척(帶下尺), 입(衽), 최(衰), 부판(負版), 의계(衣繫)로 구성된다.

3) 가령(加領) 겹깃

길이 1척 6촌, 너비 8촌으로 재단한 삼베를 세로로 접어서 가운데를 나눈다. 그 밑의 양쪽 끝을 4촌 사방으로 잘라내어 중간에 8촌을 남겨 후활중(後關中, 뒷고대)에 붙이고, 목 위로부터 좌우로 나누어 마주 접어 앞으로 드리워서 전활중(前關中)에 덧댄다. 『사례편람』의 가령도는 〈그림 6〉과 같다.

1) 적(適)

지척(指尺)으로 길이가 4척 6촌 되는 삼베 2폭의 가운데를 접어서 아래로 드리워 앞뒤의 길이가 각각 2척 3촌이 되게 한다. 시접 1촌을 제하면 길이가 2척 2촌이 되는데 양쪽 어깨 위에 접은 자리에서 4촌 아래에 전후 양옆을 포개어 좌우 폭을 각각 4촌씩 잘라 들어간 뒤에 자른 것을 나누어

4) 겹(袷, 속깃)

길이 1척 6촌, 너비 1척 4촌의 삼베를 삼등분하

여 하나는 깃에 겹쳐 꿰매어 전환중에 더하고, 하나는 가로로 접어 2점으로 하여 후활중에 더하면 깃이 3겹이 된다.

5) 대하척(帶下尺)

너비 1척 1촌의 삼베를 위로 의신에 붙이고 가로로는 허리를 두르는데 허리의 둘레를 기준으로 삼고 시접 1촌을 제하면 높이는 1척이 된다.

6) 임(衽)

길이 3척 5촌의 삼베 2폭을 각각 위는 왼쪽에서 1척 아래로 내려와 6촌 들어가고, 아래는 오른쪽에서 1척 위로 올라와 6촌 들어가 사선으로 재단한다. 넓은 머리가 위를 향하게 겹쳐서 옷의 양쪽 겨드랑이 밑에 꿰매는데 자른 베의 변이 밖에 있어 서로 덮어 내려가 제비 꼬리, 즉 연미(燕尾) 모양이 된다. 참좌는 앞자락이 뒷자락을 덮고, 재좌 이하는 뒷자락이 앞자락을 덮게 한다. 『사례편람』의 임은 <그림 7>과 같다.

7) 최(衰, 눈물받이)

길이 6촌, 너비 4촌의 삼베를 의신의 왼쪽 가슴

에 꿰매어 붙이는데, 대공 이하는 쓰지 않는다.

8) 부판(負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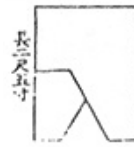
가로세로 1척 8촌의 삼베를 깃 아래에 꿰매 붙여 등허리에 대어 드리우는데, 대공 이하는 쓰지 않는다.

9) 의계(衣繫, 고름)

4개의 옷고름을 부착하는데 2개는 각기 안과 겹의 깃 가에 대고, 하나는 옷 밖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하나는 옷 안의 왼쪽 겨드랑이 밑에 대서 서로 여며 묶게 한다. 『사례편람』에 제시된 최의의 치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최상(衰裳)

최상은 남자 상복의 하의(下衣)로 조복과 제복 등의 예복에 착용하는 상(裳)과 같은 역할을 한다. 삼베 일곱 폭을 쓰는데 길이는 적당히 하고 앞은 세 자락, 뒤는 네 자락을 꿰매 붙인다. 솔기마다 좌우에 각 1촌씩 시접을 제하고 앞뒤는 꿰매지 않으며 폭마다 주름을 3개 잡는다. 너비 4, 5촌 되는 베 한 가닥을 접어 앞뒤 일곱 폭을 붙여



<그림 7> 『사례편람』의 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8)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표 1> 『사례편람』의 최의 치수

(단위 : 指尺)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의신 길이	2척 2촌	품(B/4)	2척 2촌	소매	화장	4척 4촌		
고대	8촌	가령	길이		1척 6촌	길이	2척 2촌	
적	길이		8촌		너비	4촌	너비	2척 2촌
	너비	4촌	대하척			길이	1척 6촌	진동
활중	길이	8촌		너비	1척 4촌	수구	1척 2촌	
	너비	8촌			길이	8척 8촌	길이	1척 8촌
임	길이	2척 5촌		시접	너비	1척	최	너비
	윗너비	2척 2촌	너비		4촌			
	아래 너비	6촌						

전후가 서로 닿는 곳을 조금 포개서 꿰매어 허리를 둘러 묶어 여미는데, 양 끝에 작은 띠가 있다. 뒤의 띠는 짧으며 앞을 향해 있고 앞의 띠는 길고 뒤를 향해 있다. 2번 둘러서 앞에서 묶는다. 『사례편람』의 최상도는 <그림 8>과 같다.

5. 중의(中衣)

중의는 조복, 제복 등의 중단(中單)과 같은 것으로 최복(衰服) 밑에 입는다. 만드는 법은 심의(深衣)와 같다.

6. 행전(行纏)

『가례(家禮)』에서는 늑백(勒帛), 『소학(小學)』에서는 박고(縛袴)라 하는데 상복 조항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삼베로 만들어 사용하니 폐기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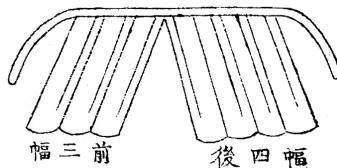
7. 수질(首絰)

굴건과 효건을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베 두 가닥을 꼬아 만든 머리띠이다. 오복에 따라 굵기를 달리하는데 아래 단계로 가면서 1/5씩 줄어든다. 참최는 굵기 9촌으로 삼본(麻本, 삼의 뿌리)이 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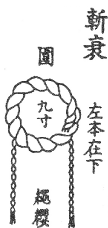
쪽에 있어 이마 앞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려 그 끝을 삼본 위에 놓고 묶는다. 참최의 갓끈(纓)은 삼끈으로 만들며 아래로 드리워서 턱 밑에서 묶는다. 재최는 굵기 7촌 2푼으로 삼본이 오른쪽에 있으며, 이마 앞에서 왼쪽으로 돌려 그 끝을 삼본 아래에 묶는다. 재최의 갓끈은 베로 만든다. 대공은 굵기가 5촌 9푼이며 갓끈은 재최와 같이 베로 만든다. 소공은 굵기가 4촌 6푼이며 갓끈이 없고, 시마는 굵기가 3촌 5푼이며 갓끈이 없다. 『사례편람』의 수질도는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8. 요질(腰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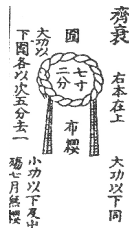
요질은 대대(大帶)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효대 위에 묶는다. 삼끈 두 가닥을 꼬아서 만드는데 굵기는 수질보다 1/5씩 가늘게 만든다. 따라서 참최의 굵기는 7촌 2푼, 재최는 5촌 9푼, 대공은 4촌 6푼, 소공은 3촌 5푼, 시공은 2촌 8푼이다. 길이는 중간에 허리를 두를 만큼으로 하고 서로 묶는 곳 좌우에 작은 띠를 각각 붙여서 단단히 묶는다. 참최는 삼끈을, 재최 이하는 베를 쓰는데 허리에 묶어 아래로 늘어뜨리는 양 끝에 3척 길이의 산수(散垂, 요질의 꼬인 것을 풀어 드리움)를 드리운다. 나이 50세 이상과 소공 이하와 부인은 산수하지 않는다. 『사례편람』의 요질도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다.



<그림 8> 『사례편람』의 최상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8)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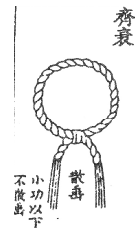
<그림 9> 『사례편람』의 참최 수질도



<그림 10> 『사례편람』의 재최 수질도



<그림 11> 『사례편람』의 참최 요질도



<그림 12> 『사례편람』의 재최 요질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9)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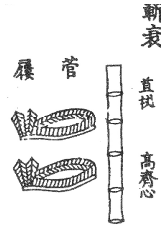
〈그림 13〉

『사례편람』의 참최 효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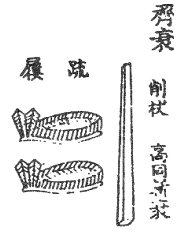
〈그림 14〉

『사례편람』의 재최 효대도



〈그림 15〉

『사례편람』의 참최 상장도



〈그림 16〉

『사례편람』의 재최 상장도

(출처: 국역 사례편람(p.329) 이재. 2003, 서울: 명문당.)

### 9. 효대(絞帶)

효대는 혁대(革帶)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대라고도 하며 요질 아래에 묶는다. 참최는 9척 길이의 삼끈 한 가닥 가운데를 접어 2가닥으로 만든 후 각각 1척 정도로 묶어 고리를 만든다. 나머지를 한데 합하여 서로 꼬면 4가닥이 겹치면서 3겹으로 4가닥이 된다. 굵기는 요질보다 가늘다. 왼쪽으로부터 허리를 둘러서 뒤를 지나 앞에 이르러 그 오른쪽 끝을 고리에 끼워서 도로 오른쪽에 꽂는다. 재최 이하는 너비 4촌의 삼베를 접어 2겹이 되게 꿰매어 2촌 너비로 만드는데 아래 단계로 갈수록 그 폭을 조금씩 줄이고 모두 오른쪽 끝 1촌 남짓을 접어서 실로 꿰매어 고리를 만든다. 『사례편람』의 효대도는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 10. 장(杖)

장(杖)은 상을 당하여 애통함이 지극한 까닭에 몸을 지탱하는데 소용되는 지팡이로 상장(喪杖) 또는 효장(孝杖)이라고도 한다. 참최에는 대나무를 쓰고 높이는 가슴과 가지런하게 하고 밑동을 아래쪽으로 한다. 재최에는 오동나무로 하는데 아래를 깎아 모나게 하여 땅의 모양을 본뜬다. 오동나무가 없으면 버드나무를 쓴다.

### 11. 구(屨)

구는 상중에 신는 신으로 참최에는 관구(菅屨, 솔새 풀로 만든 신), 재최에는 소구(疏屨, 거친 신)이다. 재최 3개월과 대공에는 승구(繩屨, 끈을

꼬아 만든 신), 소공 이하는 길복(吉服) 때의 신으로 하되, 흰 베로 만들며 신고 장식은 하지 않는다. 『사례편람』의 상장도는 〈그림 15〉, 〈그림 16〉과 같다.

## III.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 제작

본 절에서는 침선장 최은순의 실제 전승 활동을 통해 전수한 굴건제복 일습 중 가장 특징적인 품목인 최의, 최상, 굴건, 효건의 치수와 도식화, 마름질 방법 및 바느질 과정 등을 고찰하고 실물을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원단 준비하기

오복 제도는 삼베의 승수 차이 혹은 정련 유무와 거친 정도의 차이에 따라 재료에 차등을 두어 상복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승수의 삼베를 모두 제작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 시중에서는 주로 폭 35cm 전후의 삼베로 상례용은 4~5승, 여름용 침구류와 같은 일상용은 6~7승, 외출용 옷은 7~8승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은 상기가 3년인 참최복으로 폭 35cm의 삼베를 사용하여 제작하는데 최의와 최상은 4승의 삼베를, 굴건과 효건은 최의보다 조금 고운 6승의 삼베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실은 흰색의 면실 중 매우 굵고 질긴 30수 3합의 100% 면사를 사용하며 바늘은 실의 굵기에 따라 14호 바늘을 사용한다.

2. 제도하기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 중 최의의 치수는 <표 2>와 같고, 도식화는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최상의 치수는 <표 3>과 같고, 도식화는 <그림 19>와 같다. 효건과 굴건의 치수는 <표 4>와 같고, 도식화는 <그림 20>과 같다.

3. 마름질하기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은 폭 35cm의 삼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마름질한다. 최의의 몸판은 앞뒤 길이인 120cm에 도련의 시접 각각 2cm씩을 더한 124cm 길이로, 너비는 폭(B/4)인 33cm에 양쪽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35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2폭을 연결하는데 첫 번

<표 2>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 치수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총길이	119	의신 길이	60	소매	화장	82		
폭(B/4)	33	최	길이		20	길이	49	
			너비		13	너비	60	
고대	22	대하척	길이		132		진동	30
가령	길이		80	너비	17.5	수구	25	
	활중	길이	16	부판	길이	41	길이	60
너비		22	너비		35	윗너비		33
적	길이	23	고름	길이	40	입	아래 너비	10
	너비	8		너비	2		시접	1

<표 3> 침선장 최은순의 최상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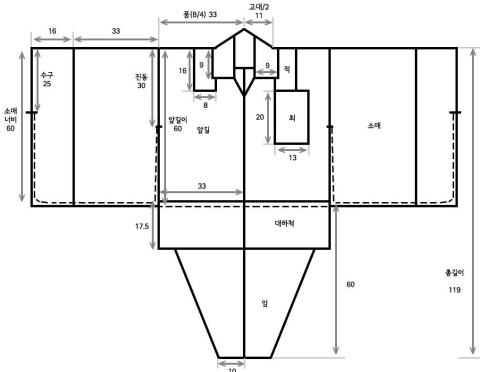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항목	치수			
치마 조각	길이	60	허리 말기	길이	95	허리 말기 끈	길이	36
	너비	12		너비	9		너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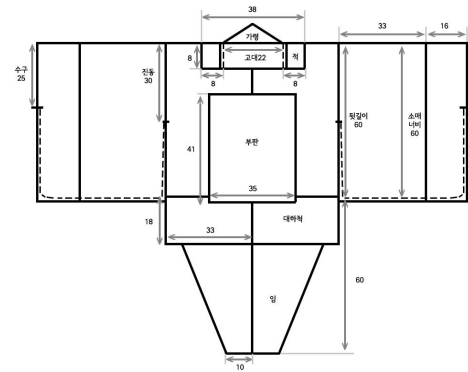
<표 4> 침선장 최은순의 효건과 굴건 치수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효건	길이	30	굴건	길이	34
	너비	15		너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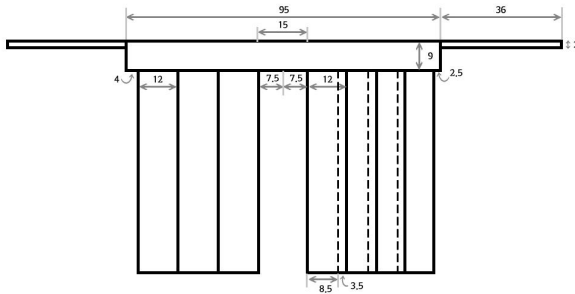


<그림 17>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 앞면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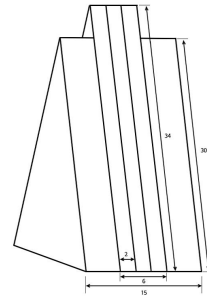


<그림 18>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 뒷면 도식화





〈그림 19〉 침선장 최은순의 최상 도식화



〈그림 20〉 침선장 최은순의 효건과 굴건 도식화

〈표 5〉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 마름질 치수

(단위 : cm)

항목	길이		너비	
몸판(2장)	120 + 시접 4 (앞뒷길 도련 각각 2)	124	33 + 시접 2 (양옆에 각각 1)	35
소매①(2장)	120 + 시접 4 (앞뒤 배래 각각 2)	124	33 + 시접 2 (양옆에 각각 1)	35
소매②(2장)	120 + 시접 4 (앞뒤 배래 각각 2)	124	16 + 시접 2 (양옆에 각각 1)	18
대하척(2장)	66 + 시접 1	67	17.5	17.5
입(4장)	60 + 시접 2	62	33 + 시접 1	34
가령	42	42	34	34
부판	41	41	35	35
최	20	20	13	13
적(2장)	16	16	8	8
고름(6장)	41	41	4	4

째 소매는 앞뒤 길이 120cm에 배래의 시접 각각 2cm씩을 더한 124cm 길이로, 너비는 33cm에 양쪽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35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두 번째 소매는 앞뒤 길이 120cm에 배래의 시접 각각 2cm씩을 더한 124cm 길이로, 너비는 16cm에 양쪽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18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대하척은 앞길 1폭과 뒷길 1폭의 너비를 더한 66cm에 등술선에서 대하척 2폭을 연결하는 시접 1cm를 더한 67cm 길이로, 너비는 35cm 폭의 삼베를 반으로 접은 17.5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입은 길이 60cm에 도련과 연결하는 위쪽의 시접 2cm를 더한 62cm 길이로, 윗너비는 33cm에 옆선에서의 시접 1cm를 더한 34cm로, 아래 너비는 10cm로 하여 4장을 마름질한다. 부판은 길이 41cm에 너비 35cm로 1장, 적은 길이 16cm에 너비 8cm로 2장, 최는 길이 20cm에 너비 13cm로 1장을 마름질한다. 가령은 길이 42cm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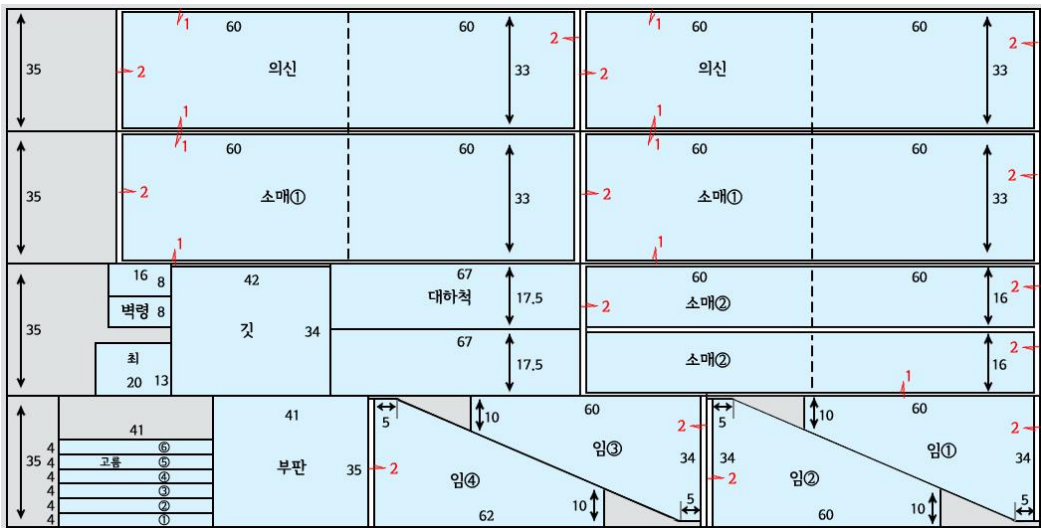
너비 35cm로 마름질한다. 고름은 길이 41cm에 너비 4cm로 6장 마름질한다. 최의 마름질 치수는 〈표 5〉와 같다. 〈표 5〉의 치수대로 폭 35cm의 삼베에 최의를 마름질하는 방법은 〈그림 21〉과 같다. 최의를 마름질하는데 필요한 원단의 소요량은 몸판 길이 248cm+소매 길이 372cm+대하척 길이 67cm+입 길이 178cm+가령·부판·최·적·고름 길이 144cm=총길이 1009cm로 11.2마가 필요하다.

35cm 폭의 삼베로 최상을 마름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은 3폭, 뒤는 4폭으로 총 7폭의 치마를 마름질하는데 각 치마폭은 길이 60cm에 허리 말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 2cm를 더한 62cm 길이로, 너비는 35cm 폭을 그대로 사용하여 총 7장을 마름질한다. 허리 말기는 길이 95cm에 양 끝의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97cm 길이에, 너비는 18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1cm를 더한

20cm로 마름질한다. 허리 말기에 양쪽으로 연결하는 끈의 길이는 36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38cm로, 너비는 4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6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최상의 마름질 치수는 <표 6>과 같다. <표 6>의 치수대로 폭 35cm의 삼베에 최상을 마름질하는 방법은 <그림 22>와 같다. 최상을 마름질하는데 필요한 원단의 소요량은 치마의 길이 434cm+허리 말기·허리끈 길이 97cm=총길이 531cm로 5.9마가

필요하다.

35cm 폭의 삼베로 효건과 굴건을 마름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효건은 60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2cm씩을 더한 64cm 길이로, 너비는 삼베 폭인 35cm 그대로 마름질한다. 굴건은 길이 68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4cm씩을 더한 76cm로, 너비는 20cm로 마름질한다. 효건과 굴건의 마름질 치수는 <표 7>과 같다. <표 7>의 치수대로 폭 35cm의 삼베에 효건과 굴건을 마름질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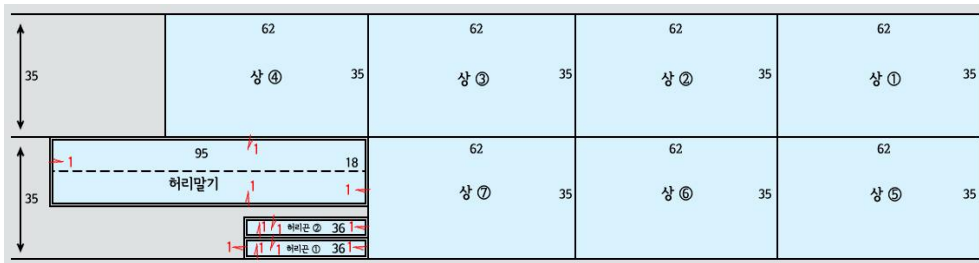


<그림 21>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 마름질법

<표 6> 침선장 최은순의 최상 마름질 치수

(단위 : cm)

항목	길이		너비	
허리말기	95 + 시접 2 (양쪽에 각각 1)	97	18 + 시접 2 (양쪽에 각각 1)	20
상(7장)	60 + 시접 2 (허리말기 안으로 들어가는 2)	62	35	35
허리끈(2장)	36 + 시접 2 (양쪽에 각각 1)	38	4 + 시접 2 (양쪽에 각각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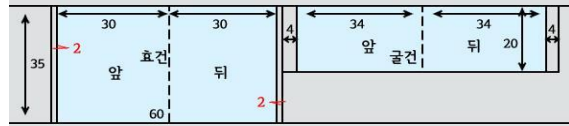


<그림 22> 침선장 최은순의 최상 마름질법

〈표 7〉 침선장 최은순의 효건과 굴건의 마름질 치수

(단위 : cm)

항목	길이	너비	
효건	60 + 시접 4 (양쪽에 각각 2)	64	35
굴건	68 + 시접 8 (양쪽에 각각 4)	76	20



〈그림 23〉 침선장 최은순의 효건, 굴건 마름질법

은 〈그림 23〉과 같다. 효건과 굴건을 마름질하는데 필요한 원단의 소요량은 효건의 길이 64cm + 굴건의 길이 76cm = 총길이 140cm로 1.6마가 필요하다.

#### 4. 바느질하기

상복은 오복제도에 따라 바느질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오복 중에서도 가장 중복(重服)인 참최의 ‘참(斬)’은 자른다는 뜻으로 옷의 가장자리를 꿰매지 않고 자른 상태 그대로 놓아두며 시접도 바깥으로 나오게 하여 슬픔의 극한 상태를 나타낸다. 재최의 ‘재(齋)’는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으로 상복의 밑단을 꿰매어 정리한다. 대공과 소공에서의 ‘공(功)’은 튼튼하거나 정교함을 뜻하는데 대공은 소공에 비하여 만든 솜씨가 거칠고 재료 역시 성글다. 소공은 대공에 비하여 재료를 다듬고 바느질하는 것이 곱고 세밀하다. 시마의 ‘시(總)’는 가는 삼실로 짠 고운 베를 뜻하는 것으로 재료와 제작 방법 면에서 가장 곱고 세밀함을 알 수 있다(조우현 외, 2016).

시접을 꺾는 방향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최의는 오복 모두 시접이 바깥쪽으로 나오며 최상은 오복 모두 시접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시접을 바깥쪽으로 꺾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며 시접을 안으로 꺾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으로 가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의인 최의의 시접 방향이 바깥쪽인 것은 상의는 하늘인 아버지를 의미하며 하의인 최상의 시접 방향이 안쪽인 것은 하의는 땅인 어머니를 의미하기 때문이다(정옥임, 2003).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은 참최복이므로 최의의 모든 시접은 바깥쪽으로, 최상의 모든 시접은 안쪽으로 향하게 바느질한다. 또한 참최는 최의와 최상의 가장자리와 밑단을 정

리하지 않으므로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와 최상 역시 가장자리를 재단한 상태 그대로 둔다. 바느질 과정에서 침선장 최은순이 강조한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느질하는 실의 끝을 매듭짓거나 끊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항상 바느질할 부분의 치수를 미리 생각하여 실을 넉넉하게 바늘에 꿰어 사용하고 바느질의 시작과 끝부분에서는 바느질한 자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꿰맨다. 바느질 기법은 1cm 땀 크기의 드문 홉질이다.

##### 1) 최의

###### (1) 등술 바느질하기

길이 124cm에 너비 35cm인 몸판 2쪽의 가운데를 접어서 아래로 드리워 전후 4폭이 되게 한다. 등술은 〈그림 24〉와 같이 식서로 시접 1cm를 주고 등술 시접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바느질하는데 고대 중심에서 6cm 아래로 내려간 지점부터 등술을 꿰맨다. 〈그림 25〉와 같이 앞 중심을 터주고 등술은 가름술 한다.

###### (2) 활중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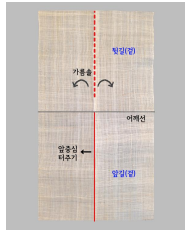
〈그림 26〉과 같이 몸판에 활중을 그리고 〈그림 27〉과 같이 활중을 파준다. 〈그림 26〉의 ㉠과 ㉡ 선을 따라 앞 중심에서 2cm를 비스듬하게 안으로 접어 넣는데 이는 후활중이 11cm인 것에 반해 전활중은 9cm로 2cm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령을 활중 둘레에 두르고 나면 앞 중심선에서 각각 2cm씩 비스듬하게 벌어져 착용 시 목이 편안하고 여밈도 답답하지 않게 된다.

###### (3) 적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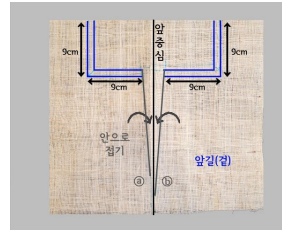
〈그림 28〉과 같이 적을 마름질하여 〈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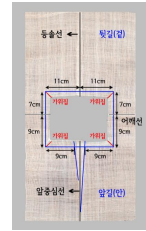
〈그림 24〉 등솔 바느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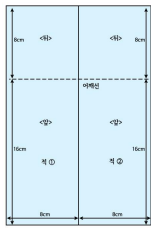
〈그림 25〉 등솔 가름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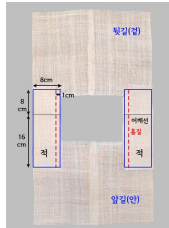
〈그림 26〉 몸판에 활중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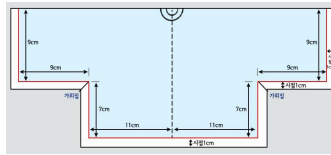
〈그림 27〉 활중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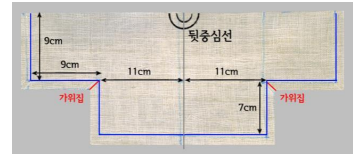
〈그림 28〉 적 마름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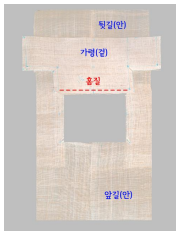
〈그림 29〉 적 부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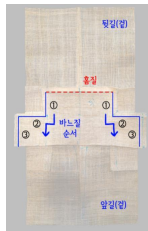
〈그림 30〉 가령 마름질법



〈그림 31〉 가령 만들기



〈그림 32〉 깃고대에 가령 바느질하기



〈그림 33〉 활중 둘레에 가령 바느질하기



〈그림 34〉 가령과 적을 부착한 모습(앞)



〈그림 35〉 가령과 적을 부착한 모습(뒤)

와 같이 몸판의 어깨선에 맞추어 적을 바느질하는데 시점이 바깥으로 나오게 부착한다.

(4) 가령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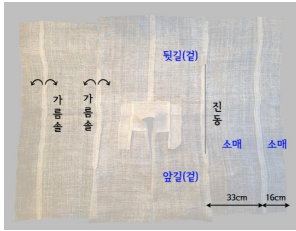
〈그림 30〉과 같이 가령을 마름질하여 〈그림 31〉과 같이 가령을 만든다.

〈그림 32〉와 같이 깃고대부터 가령을 꿰매는데 가령의 겹을 뒷길의 안쪽에서 홈질로 연결한 후 뒷길의 겹쪽으로 가령을 빼낸 후 〈그림 33〉의 ①→②→③ 순서로 바느질한다. ①에서는 가령을 깃고대에서 어깨선까지 홈질로 연결한다. ②에서는 직각으로 꺾여 있는 가령을 ①의 바느질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반듯하게 편 후 좌우 활중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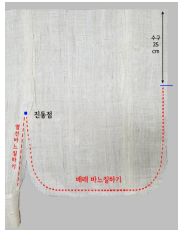
까지 홈질로 연결한다. ③에서는 전환중의 꺾임 부분부터 앞 중심까지 바느질하는데 이때 앞 중심선에서 2cm를 비스듬하게 안으로 접어 넣은 후 가령을 올려놓고 바느질한다. 가령을 활중 둘레에 연결할 때도 시점은 모두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 적과 가령을 모두 부착한 모습은 〈그림 34〉, 〈그림 35〉와 같다.

(5) 소매 연결하기

길이 33cm와 16cm인 소매 2폭을 먼저 연결하는데 시점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바느질하며 가름솔 한다. 몸판의 양쪽에 소매를 연결하는데 어깨선과 소매의 중심을 잘 맞춘 후 시점이 겹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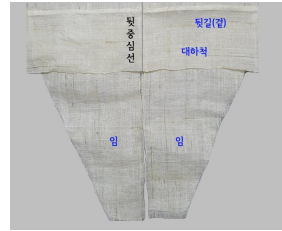
〈그림 36〉 몸판에 양쪽 소매를 연결한 모습 배래와 수구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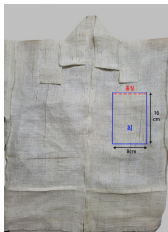
〈그림 37〉 진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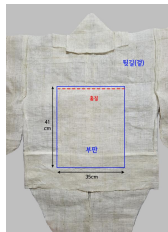
〈그림 38〉 앞길의 입과 대하척



〈그림 39〉 뒷길의 입과 대하척



〈그림 40〉 최를 부착한 모습



〈그림 41〉 부판을 부착한 모습



〈그림 42〉 고름을 부착한 모습

오도록 앞뒤의 진동점까지 바느질한다. 〈그림 36〉과 같이 바깥으로 나온 시접을 가름술 한다.

(6) 배래와 수구 만들기

등술선→어깨중심선→소매중심선→수구→진동→동아래→배래 순서로 정확하게 맞추고 소매를 반으로 접는다. 앞뒤의 진동점을 정확히 맞춘 후 〈그림 37〉과 같이 진동점에서부터 수구까지 홈질로 배래와 수구를 만든다. 진동점부터 시작하여 도련 아래 시접까지 온박음질 하는데 시접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가름술 한다.

(7) 입과 대하척 부착하기

제비 꼬리 모양의 입을 몸판 아래로 드리우고, 대하척으로 허리를 두른다. 입의 시접이 겉으로 나오도록 몸판 1폭마다 입 1장씩 부착한다. 대하척은 등술선에서 시접 1cm가 겉으로 나오도록 홈질로 2장을 연결한 후 가름술 한다. 입 위에 대하척을 올리고 시접이 겉으로 나오도록 몸판과 함께 바느질하는데 시접은 몸판 쪽으로 향하게 한다. 입과 대하척을 몸판에 연결한 모습은 〈그림 38〉, 〈그림 39〉와 같다.

(8) 최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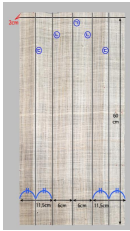
눈물받이인 최는 길이 20cm, 너비 13cm로 재단하여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부착한다. 깃에서 9cm 아래, 왼쪽 앞길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그림 40〉과 같이 위쪽만 꿰매어 부착한다.

(9) 부판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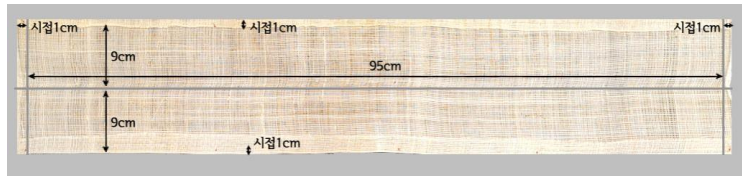
부판은 길이 41cm, 너비 35cm로 재단한다. 깃에서 15cm 아래, 뒷길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그림 41〉과 같이 부판의 위쪽만 꿰매어 부착한다.

(10) 고름 달기

고름은 3쌍을 달아준다. 길이 41cm에 너비 4cm로 6개를 재단하여 반으로 접어 꿰매는데 고름 역시 시접이 겉으로 나오게 바느질한다. 솔기가 위로 가게 하여 〈그림 42〉와 같이 전환중의 가령에서 10cm 아래에 첫 번째 고름을 달고, 첫 번째 고름에서 20cm 아래에 두 번째 고름을 단다. 두 번째 고름에서 다시 20cm 아래인 대하척의 윗 부분에 세 번째 고름을 단다.



〈그림 43〉 상 주름 접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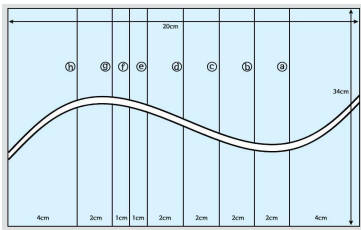
〈그림 44〉 허리 말기 마름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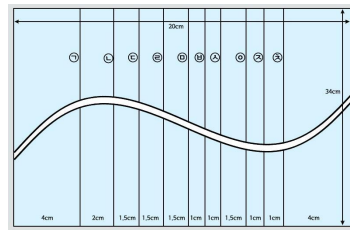
〈그림 45〉 상 7폭과 허리 말기



〈그림 46〉 완성된 최상



〈그림 47〉 굴건 앞면 주름잡기



〈그림 48〉 굴건 뒷면 주름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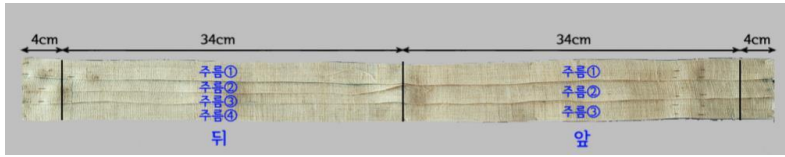
### 2) 최상

최상은 최의와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와 밑단을 호아서 정리하지 않고 재단한 상태 그대로 둔다. 그러나 시접은 안으로 들어가도록 바느질한다. 길이는 상 길이 60cm에 허리 말기 안으로 들어가는 시접 2cm를 더한 62cm로, 너비는 삼베의 폭 35cm를 그대로 사용하여 총 7폭을 마름질한다. 〈그림 43〉과 같이 중심선 ㉠에서 좌우로 6cm 떨어진 ㉡선을 뒤로 접고 ㉢선은 앞으로 접어 7폭의 상을 모두 주름잡는다. 〈그림 44〉와 같이 허리 말기를 마름질한다. 〈그림 45〉와 같이 앞쪽의 상 3폭은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뒤쪽의 상 4폭은 3.5cm씩 겹치게 배치하고 상 윗부분 2cm를 허리 말기 안으로 넣어 바느질한다. 허리를 묶는 끈은 36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38cm 길이로, 너비는 4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1cm씩을 더한 6cm로 마름질하여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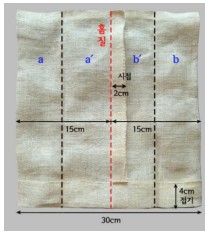
바느질한다. 완성된 최상은 〈그림 46〉과 같다.

### 3) 굴건과 효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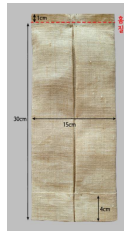
굴건은 최의보다는 조금 고운 6승의 삼베로 만들며 앞에 3줄, 뒤에 4줄의 주름을 잡는다. 굴건은 길이 68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4cm씩을 더한 76cm 길이로, 너비는 20cm로 마름질한다. 굴건의 앞면은 〈그림 47〉과 같이 주름을 잡는다. ㉠선은 안으로 접고 ㉡선은 바깥으로 접는다. ㉢선은 안으로 접는데 ㉣선이 ㉤선에 닿게 한다. ㉥선은 바깥으로 접고, ㉦선은 안으로 접는데 ㉧선이 ㉨선에 닿게 한다. ㉩선은 뒤로 접는다. 굴건의 뒷면은 〈그림 48〉과 같이 주름을 잡는다. ㉠선은 안으로 접고 ㉡선은 바깥으로 접는다. ㉢선은 안으로 접는데 ㉣선이 ㉤선에 닿게 한다. ㉥선은 바깥으로 접고, ㉦선은 안으로 접는데 ㉧선이 ㉨선에 닿게 한다. ㉩선은 바깥으로 접고, ㉪선은 안으로



〈그림 49〉 앞뒷면에 주름을 잡은 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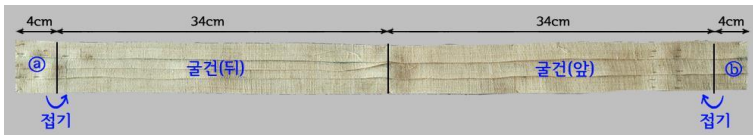
〈그림 50〉 효건 바느질하기 1



〈그림 51〉 효건 바느질하기 2



〈그림 52〉 효건



〈그림53〉 굴건과 효건 연결하기



〈그림 54〉  
노끈  
고정하기(앞)



〈그림 55〉  
노끈  
고정하기(뒤)



〈그림 56〉 수질



〈그림 57〉 요질



〈그림 58〉 행전

접으며 ㉔선은 뒤로 접는다. 〈그림 49〉와 같이 앞면에는 오른쪽으로 3줄의 주름이, 뒷면에는 오른쪽으로 4줄의 주름이 잡힌다.

효건도 6승의 삼베로 만드는데 삼베 폭 35cm를 길이로 사용하고 너비는 60cm에 양쪽의 시접 각각 2cm씩을 더한 64cm로 마름질한다. 〈그림 50〉과 같이 너비 64cm를 반으로 접어 양쪽의 시접 2cm를 꿰맨 솔기가 앞 중심에 오도록 한 뒤 밑부분 4cm를 안으로 접어준다. a를 a'로 접어주고, b를 b'로 접어준 후 〈그림 51〉과 같이 윗부분 1cm를 꿰매고 뒤집으면 〈그림 52〉와 같이 효건이 완성된다.

굴건과 효건을 노끈으로 연결하기 위해 〈그림 53〉과 같이 굴건의 길이 34cm를 제외한 양 끝부분 4cm인 ㉓와 ㉔를 안쪽으로 접어서 윗부분만 꿰매어 고리처럼 만든다. 이 고리 안에 노끈을 넣어서 한번 돌려주고 〈그림 54〉, 〈그림 55〉와 같이 효건 둘레에도 빙 둘러주는데 효건의 사방 모서리에서 노끈을 꿰매어 고정한다.

수질, 요질, 행전, 지팡이, 짚신은 〈그림 56〉 ~ 〈그림 60〉과 같다.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 일습에서 효대는 빠져 있다.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 일습을 착용한 모습은 〈그림 61〉과 같다.



〈그림 59〉 지팡이



〈그림 60〉 짚신



〈그림 61〉 침선장 최온순의 굴건제복  
일습 착용 모습

(출처: 최온순 침선장 기증 전통복식 (p.143)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 전북대학교 박물관.)

〈표 8〉 『사례편람』의 최의와 침선장 최온순의 최의 치수 비교

(단위 : cm)

항목	치수		항목	치수			
	사례편람	최온순		사례편람	최온순		
의신 길이	50.6	60	품(B/4)	50.6	33		
고대	18.4	22	입	길이	57.5	60	
적	길이	18.4		23	윗너비	50.6	33
	너비	9.2		8	아래 너비	13.8	10
활중	길이	18.4	16	겹	길이	36.8	-
	너비	18.4	22		너비	32.2	-
가령	길이	36.8	40	대하척	길이	202.4	132
	너비	9.2	9, 11		너비	23	17.5
소매	화장	101.2	82	부판	길이	41.4	41
	길이	50.6	49		너비	41.4	35
	너비	50.6	60	최	길이	13.8	20
	진동	50.6	30		너비	9.2	13
	수구	27.6	25		시접	2.3	1

#### IV. 전통 굴건제복과 침선장 최온순의 굴건제복 비교 고찰

본 절에서는 전통 굴건제복과 침선장 최온순의 굴건제복의 차이점을 비교 고찰하였다.

##### 1. 최의

###### 1) 전체 치수 비교

『사례편람』에 나타난 최의의 치수는 척촌(尺寸)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침선장 최온순의 굴건제복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으로 환산해야 한다. 조선 세종대에는 포

백의 치수를 측정하고 포목의 매매 및 의복을 만드는 데에는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척도 체계의 기준을 세워 사용하였다. 세종대에 제정된 척도들을 미터법으로 환산해 보면 주척은 약 20.8cm, 포백척은 약 46.7cm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포백척으로 상복을 제작할 경우 착용이 어려울 정도의 큰 옷이 된다. 따라서 『사례편람』의 남자 상복을 고증 및 제작한 조우현(1990), 조우현 외(2016), 김기상(2014)의 선행 연구들을 근거로 1척을 23cm로 환산하여 침선장 최온순의 최의와 치수를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2) 활중

『사례편람』에서는 활중의 길이와 너비가 모두 18.4cm(8촌)이다. 어깨 중심선을 기준으로 앞뒤로 각각 9.2cm(4촌)씩 내려오고, 고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각각 9.2cm(4촌)씩 나와서 활중을 파주므로 정사각형의 활중이 된다. 반면 침선장 최은순의 활중은 길이 16cm, 너비 22cm로 어깨 중심선을 기준으로 후활중의 길이는 7cm, 전활중의 길이는 9cm이며 고대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로 11cm씩 나와서 활중을 파주므로 직사각형의 활중이 된다. 침선장 최은순의 고대가 『사례편람』보다 더 큰데 이는 착용자의 목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앞 중심선의 처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례편람』을 통해 최의의 앞여밈은 꽤자나 원삼과 같이 맞깃 형태로 대금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침선장 최은순은 최의 착용 시 목을 편안하게 하려고 고대를 넓게 파주고, 앞여밈도 답답하지 않게 하려고 <그림 26>, <그림 27>과 같이 전활중의 중심에서 양쪽으로 2cm씩 비스듬하게 접어 주었다. 따라서 전활중의 너비는 9cm, 후활중의 너비는 11cm로 가령을 만들 때도 앞뒤의 너비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 『사례편람』의 최의는 고대 중심에서 9.2cm(4촌) 내려온 지점부터 등술을 바느질하고,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는 고대 중심에서 6cm 내려온 지점부터 등술을 바느질한다. 등술의 시점을 바깥으로 향하게 바느질하는 것은 동일하다.

3) 가령, 겹

깃을 더한다는 뜻의 가령은 적을 만들면서 생긴 활중을 막아 주는 것으로 『사례편람』에서는 길깃이라고 한다. 『사례편람』의 가령은 길이 36.8cm(1척 6촌), 너비 18.4cm(8촌)로 마름질한 사각 포의 너비를 반으로 접은 후 접은 선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서 9.2cm(4촌)씩 들어와 정사각형으로 잘라내면 T자형의 깃이 만들어진다. 18.4cm(8촌)로 후활중을 막고 나머지를 앞길 쪽으로 넘겨 활중의 좌우와 전활중을 막는다. 따라서 가령으로 활중을 둘러준 총길이는 73.6cm(3척 2촌)이며 가령의 너비는 9.2cm(4촌)가 된다. 겹은 가령 안에 덧대는 안깃으로 길이 36.8cm(1척 6

촌), 너비 18.4cm(8촌)로 마름질한 사각 포의 너비를 삼등분한다. 한 장은 길이가 18.4cm(8촌)가 되게 반으로 접어서 후활중을 막아 주는 18.4cm(8촌)의 가령에 맞춰 붙이고, 나머지 2장은 겹쳐서 가령의 길이 36.8cm(1척 6촌)에 맞춰 붙인다. 이렇게 하면 깃이 3겹이 되는데 이는 깃이 뺏뺏하게 힘을 받도록 하기 위한 구성 방법이다.

침선장 최은순은 겹을 따로 대지 않고 일반적인 저고리의 깃처럼 2겹으로 가령을 만들어 활중을 둘러준다. 그리고 활중의 길이와 너비가 『사례편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령의 길이와 너비 역시 차이가 있다. 침선장 최은순의 가령의 길이가 『사례편람』의 가령 길이보다 더 길고 후활중 쪽의 가령의 너비는 침선장 최은순의 가령이 넓고, 전활중 쪽의 가령의 너비는 비슷하다.

4) 적

접어 넘긴다는 뜻의 적은 벽령이라고도 하는데 『사례편람』에서는 참최와 재최는 밖으로 접어 넘기고, 대공 이하는 잘라내 없앤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례편람』의 참최의 적은 길이 18.4cm(8촌), 너비 9.2cm(4촌)로 양어깨에 있게 된다. 그러나 침선장 최은순은 활중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아예 잘라내 버리고 <그림 28>, <그림 29>와 같이 길이 24cm, 너비 8cm의 적을 별도로 만들어 양어깨에 달아준다. 『사례편람』의 적은 길이가 활중과 동일하고 너비는 활중 너비의 절반인 것에 반해 침선장 최은순의 적은 활중보다 길이가 8cm 길고 너비는 전활중의 절반 길이와 비슷하다. 침선장 최은순은 굴건제복 전수 과정에서 부모를 여원 슬픔을 어깨에 짊어짐을 상징하는 적의 의미를 항상 강조하였고 이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적의 길이를 활중의 길이보다 길게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최

최는 부모의 상을 당하여 비애(悲哀)를 억누르는 쇠(衰)가 심장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눈물받이라고도 한다. 최의(衰衣), 최복(衰服)이라는 명칭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상복의 상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례편

람』의 최는 길이가 13.8cm(6촌), 너비는 9.2cm(4촌)이며 침선장 최은순의 최는 길이 20cm에 너비 13cm로 침선장 최은순의 최가 더 크다. 이는 적과 마찬가지로 굴건제복 전수 과정에서 최의 의미를 늘 강조하였고 이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길이와 너비를 더 크게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최이므로 가장자리를 바느질하지 않는 것과 심장이 있는 의신의 왼쪽 가슴에 꿰매어 부착하는 것은 『사례편람』과 동일하다.

6) 부판

최와 마찬가지로 지극한 비애를 등에 짊어짐을 상징하는 부판은 『사례편람』에서는 길이와 너비 모두 41.4cm(1척 8촌)로 정사각형이다. 침선장 최은순의 부판은 길이 41cm에 너비 35cm로 길이는 『사례편람』과 비슷하나 너비는 삼베 폭 35cm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이룬다. 적과 최 그리고 부판은 대공, 소공, 시마에는 부착하지 않고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참최와 재최에만 부착하는 상징물들이다. 재최는 최와 부판의 밑단 가장자리를 한번 접어 바느질하나 참최는 가장자리를 재단한 상태 그대로 두어 옷감이나 바느질 상태 등의 가장 거친 모습으로 가장 큰 죄인임을 상징한다. 따라서 최은순의 굴건제복에는 적, 최, 부판을 모두 부착하며 가장자리나 밑단을 재단한 상태 그대로 두고 바느질한다.

7) 대하척

대하척은 최상의 윗부분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1척(尺) 너비의 띠(帶)를 의신 아래(下)에 부착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명칭이다. 『사례편람』의 대하척은 너비 1척 1촌인데 시접 1촌을 제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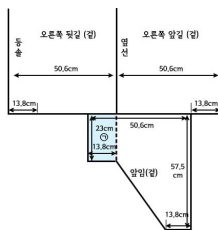
23cm(1척)가 된다. 길이는 몸판의 너비 2척 2촌을 4배 한 202.4cm(8척 8촌)로 아주 긴 길이의 대하척을 1장만 마름질한다.

침선장 최은순은 35cm 너비인 삼베를 이등분한 17.5cm를 대하척의 너비로 한다. 길이는 앞길과 뒷길의 너비 1폭씩 더한 66cm에 등술선에서 대하척 2폭을 연결하는 시접 1cm를 더한 67cm로 2장을 마름질한다. <그림 18>의 도식화와 <그림 39>의 실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몸판의 등술선과 대하척 2장을 연결한 부위가 나란히 뒷길의 중심에 오게 된다. 이는 최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원단을 마름질하는 방법으로 침선장 최은순은 굴건제복 전수 과정뿐 아니라 모든 옷을 짓는 과정에서 항상 완전하고 낭비하지 않으며 허비가 없는 원단의 마름질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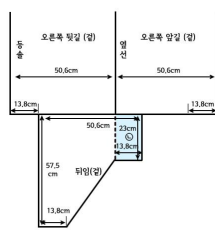
8) 입

입은 최상의 벌어진 옆을 가리기 위해 의신의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부착한다. 『사례편람』에서는 길이 57.5cm(2척 5촌), 윗너비 50.6cm(2척 2촌), 아래 너비 13.8cm(6촌)로 입을 재단하여 넓은 면이 위로 가도록 2장을 마주하여 몸판에 달아준다. 앞길에 입을 부착하는 방법은 <그림 62>와 같고, 뒷길에 입을 부착하는 방법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2>에서 ㉠ 부분이 뒷길 쪽으로 넘어가고 <그림 63>에서는 ㉡ 부분이 앞길 쪽으로 넘어가는데 참최는 <그림 64>와 같이 ㉠이 ㉡을 덮도록 바느질한다. 이렇게 하면 앞길과 뒷길의 중심에서 양쪽으로 각각 13.8cm(6촌) 떨어진 지점에 입이 부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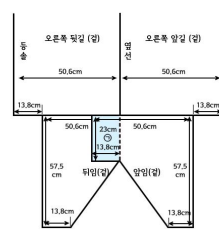
침선장 최은순의 입은 길이 60cm, 윗너비 34cm, 아래 너비 10cm로 <그림 17>의 도식화와 <그림 21>의 마름질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



<그림 62>  
앞길에 입을 부착하는 방법



<그림 63>  
뒷길에 입을 부착하는 방법



<그림 64>  
참최의 입 부착 방법

례편람』의 입과 윗부분의 형태가 다르다. 또한 입의 윗너비와 몸판의 너비가 동일하여 앞길과 뒷길의 중심에서 벌어짐이 없이 입이 부착된다. 이는 35cm 삼베의 폭을 몸판 너비로 사용하고, 또 입의 윗너비를 몸판의 너비와 동일하게 마름질하기 때문이다. 대하척의 마름질법과 마찬가지로 허비되는 부분 없이 원단을 마름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입을 마름질하여 부착하게 되면 참최는 앞장의 입이 뒷장의 입을 덮고, 재최 이하는 뒷장의 입이 앞장의 입을 덮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를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입과 대하척을 바느질하는 방법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사례편람』에서는 대하척 위에 입을 올려놓고 몸판과 연결하는 반면 침선장 최은순은 입 위에 대하척을 올려놓고 몸판과 연결한다. 이러한 봉제 방법은 강수아(2017)의 근대 남자 상복 유물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유물 연대가 1950~1960년대인 최의 유물 11점의 치수와 봉제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5점의 최의 유물이 입 위에 대하척을 올리고 몸판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은정(2006)은 전통 상복의 입은 현대 상복의 입에 대하척 부분이 더해진 형태이며, 앞뒤 입이 서로 겹치지 않고 대하척 아래에 놓고 몸판과 연결하는 봉제 방법은 현대 상복을 제작하는데 바느질 방법의 편리성이나 원단의 비용 절감을 위해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침선장 최은순은 허비가 없는 완전한 원단 사용과 용이한 바느질을 위해 입의 형태와 바느질 방법에 변화를 준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비교 고찰은 차후 상복 연구에서 심화 연구하고자 한다.

9) 메

『사례편람』에서는 몸판의 길이, 소매의 길이, 진동, 소매의 너비 모두 50.6cm(2척 2촌)로 동일하다. 이는 105.8cm(4척 6촌)의 삼베 2폭을 각각 반으로 접고 시접 2.3cm(1촌)를 제외하면 산출되는 치수이다. 『사례편람』의 최의는 동아래가 없는 구조이며 몸판과 소매를 잇는 시접은 바깥쪽으로 향한다.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는 33cm와 16cm 소매 2

폭을 먼저 연결한 후 소매를 몸판에 연결한다. 침선장 최은순의 최의는 진동이 몸판의 길이보다 짧아 동아래가 생기는 구조이다. 시접은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바느질하고 가름술 한다. 『사례편람』에서는 폭이 50.6cm(2척 2촌)인 삼베를 사용하고, 침선장 최은순은 35cm 폭의 삼베를 사용하므로 소매의 길이와 화장은 『사례편람』의 최의가 더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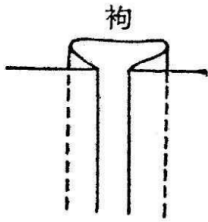
10) 의계

소대(小帶)라고도 하는 옷고름으로 『사례편람』에서는 2쌍의 옷고름을 부착하는데 2개는 기의 끝에, 나머지 2개는 겨드랑 밑에 단다. 반면 침선장 최은순은 전환중의 가령에서 10cm 아래에 첫 번째 고름을 달고, 첫 번째 고름에서 20cm 아래에 두 번째 고름을 단다. 두 번째 고름에서 다시 20cm 아래인 대하척의 윗부분에 세 번째 고름을 단다. 『사례편람』보다 침선장 최은순의 몸판 길이와 입의 길이가 길어 3쌍의 고름으로 대금형인 앞머미가 벌어지지 않도록 여며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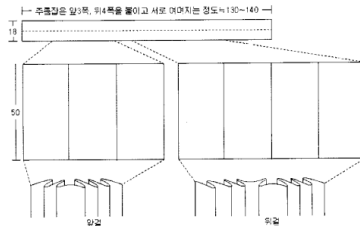
2. 최상

『사례편람』의 상은 앞 3폭, 뒤 4폭으로 총 7폭으로 구성되는데 각 폭마다 3개의 주름을 잡아 허리 말기에 붙이고 양 끝에 작은 끈을 달아 허리에 2번 돌려 앞에서 묶는다. 차서연(2020)은 길복(吉服)인 제복과 조복의 상은 주름이 수없이 많지만, 상복은 폭마다 주름이 3개인데 <그림 65>와 같이 양 가장자리를 서로 마주 보게 접어서 가운데를 비우는 형태라고 하였다. 조우현 외(2016)는 이에 대해 가운데를 비우고 안쪽으로 마주 보는 맞주름 2개를 잡아 3개의 주름처럼 보이게 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은정(2006)은 전통 상복의 최상 주름을 <그림 66>으로, 현대 상복의 최상 주름을 <그림 67>의 도식화로 설명하였다.

침선장 최은순은 삼베 35cm 너비를 한 폭으로 하여 총 7폭의 상을 <그림 43>의 방법대로 주름을 접는데 ㉠을 중심으로 양쪽의 ㉡ 부분까지는 빈 곳이 되고 ㉢은 서로 마주 보는 맞주름이 되어 상 한 폭의 주름은 <그림 68>, <그림 69>와 같다. <그림 45>와 같이 95cm 길이의 말기를 절반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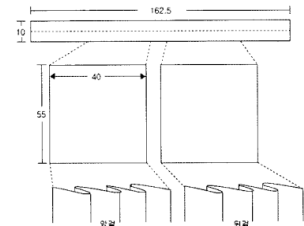


〈그림 65〉 상 주름 접는 방법  
(출처: 『상례사전』 「상복상」에 나타난 다산의 상복관 차서연, 2020,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1.)



〈그림 66〉 전통 상복 최상의 주름

(출처: “실물제작을 통한 전통상복 연구-광주지역 현대상복과 사례편람 상복제작법을 중심으로” 김은정, 2006, Human Ecology Research 44(2), p.58.)



〈그림 67〉 현대 상복 최상의 주름



〈그림 68〉 침선장 최운순의 최상 한 폭의 주름(앞)



〈그림 69〉 침선장 최운순의 최상 한 폭의 주름(뒤)

로 나누어 앞쪽에 상 3폭, 뒤쪽에 상 4폭을 연결하므로 앞의 3폭은 겹치는 부분 없이 배치되며 뒤의 4폭은 3.5cm씩 겹치게 배치된다. 앞 폭과 뒤폭은 15cm의 간격을 두고 상의 윗부분 2cm를 말기 사이에 끼워 넣어 연결한다. 허리를 묶는 끈은 허리 말기 양 끝에 하나씩 부착하는데 길이 36cm에, 너비 4cm로 오른쪽에서 묶는다. 침선장 최운순의 최상은 『사례편람』과 비교하였을 때 구성적 차이점이 다른 품목들보다도 큰 편이다. 강수아(2017)는 유물 연대가 1950~1960년대인 최상 유물 8점의 치수와 봉제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침선장 최운순의 최상과 같이 35cm 너비를 한 폭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7폭을 주름잡은 상은 찾아볼 수 없다. 문헌이나 유물과는 달리 침선장 최운순의 최상이 지니는 특징에 관한 연구는 차후 심화한 상복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복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구성품이다(조우현, 1990). 『사례편람』에서는 폭의 끝부분을 봉제한 솔기가 뒤 중심에 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침선장 최운순은 굴건제작 전수 과정에서 “효건의 바느질 솔기는 아들 상주는 앞의 중심에 오게 하고 그 외의 조카나 사위는 바느질 솔기를 옆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지도하였고, 실제로 참취의 효건을 제작하는데 〈그림 50〉~〈그림 52〉와 같이 바느질 솔기가 앞 중심에 오도록 하였다. 효건을 포함하여 침선장 최운순의 굴건제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전라도의 지역적 특성인지, 원단 절감의 경제성이나 바느질 과정의 단순화 등 침선장 최운순의 공정 개선 노력의 결과인지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효건

부모를 향한 효심을 상징하는 것에서 유래된 효건은 『의례(儀禮)』, 『가례(家禮)』 등의 중국의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의 예서인 『상례비요』에서는 “옛 제도에 어긋나지만, 풍속에 따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상

V. 결론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근대적 산업사회를 거치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함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었다. 특히 19세기 말 서양 의복이 도입되면서 우리 고유의 의생활에도 변화가 생겨 한복의 쓰임은 일상에서 매우 적은 비율로 축소되었고 현재

에는 의례별로 예를 갖추는 차원에서 겨우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통과 의례로 행하는 관혼상제 중 생의 마지막 의례인 상례는 고례(古禮)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예법이었으며 상복의 제도는 상을 당하는 순간부터 탈상까지 법도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그러나 유교식 상례의 절차와 상복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 오늘날 남자의 전통 상복인 굴건제복에 관한 본 연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조선 후기의 대표적 예서인 『사례편람』과 이를 교정 증보한 『증보사례편람』을 통해 조선시대 굴건제복의 구성과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둘째, 침선장 최은순의 실제 전승 활동을 통해 전수한 굴건제복의 일습 중 가장 중요한 품목인 최의, 최상, 굴건, 효건의 치수와 도식화, 마름질 방법 및 바느질 과정 등을 고찰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셋째, 전통 굴건제복과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 고찰하였다.

상복은 집안과 가문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유독 강한 예복인데 전통 굴건제복과 달리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생존 시 침선장 최은순의 직접적인 설명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것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침선장 최은순의 굴건제복에서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전라도 굴건제복의 지역성인지, 침선장 최은순의 개인적인 공정 개선으로 인한 형태와 바느질법의 변화인지는 차후 진행할 연구에서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굴건제복에 이어 여자의 상복인 대수장군(大袖長裙)에 관한 후속 연구도 실시하고자 한다.

굴건제복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최의, 최상, 굴건, 효건의 실물을 제작하며 제시한 구성 방법의 고찰 결과는 전통 복식의 고증 및 복원 연구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굴건제복 제작에 관한 본 연구가 침선장 최은순의 생전의 바람대로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복

원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상복 문화의 정립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수아. (2017). 근대 남자 상복 유물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5).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서울: 두산동아.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옷차림과 치장의 변천*. 서울: 두산동아.
- 김기상. (2014). *예서에 나타난 의례 복식 재현 : 사례편람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6). 실물 제작을 통한 전통 상복 연구 - 광주지역 현대 상복과 사례편람 상복 제작법을 중심으로-. *Human Ecology Research*, 44(2), 49-59.
- 김장향, 은영자. (2006). 전통 상복의 복제 및 종류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2, 37-49.
- 김희숙. (1984). *조선시대 사가의 상복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광희. (1999). 한국의 상례복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2(3), 17-28.
- 소황옥, 정혜린. (2004). 한국 전통 상복과 현대의 상복 변화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7(3), 17-26.
- 윤은영. (2004). *현행 상례 의식에 나타난 상복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 (2004). *국역 사례편람 (우봉 이씨 대종회 역)*. 서울: 명문당.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연합회. (2018). *미래가치를 담아낸다*. 전주: 신아출판사.
- 정옥임. (2003). 상복에서의 상징성 연구 - 상복 저고리를 중심으로. *복식*, 54(4), 55-62.
- 조우현. (1990). *조선시대 상복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우현, 김혜경, 동준희, 박민재. (2016). 『사례편람』에 기초한 남자 상복의 고증 제작에 관한 연구. *복식*, 66(8), 123-137.
- 차서연. (2020). 『상례사전』 『상복상』에 나타난 다

- 산의 상복관.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상일. (2011). *상복의 구성과 상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필수. (2014). *증보사례편람 역주본 (문옥표 역)*.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